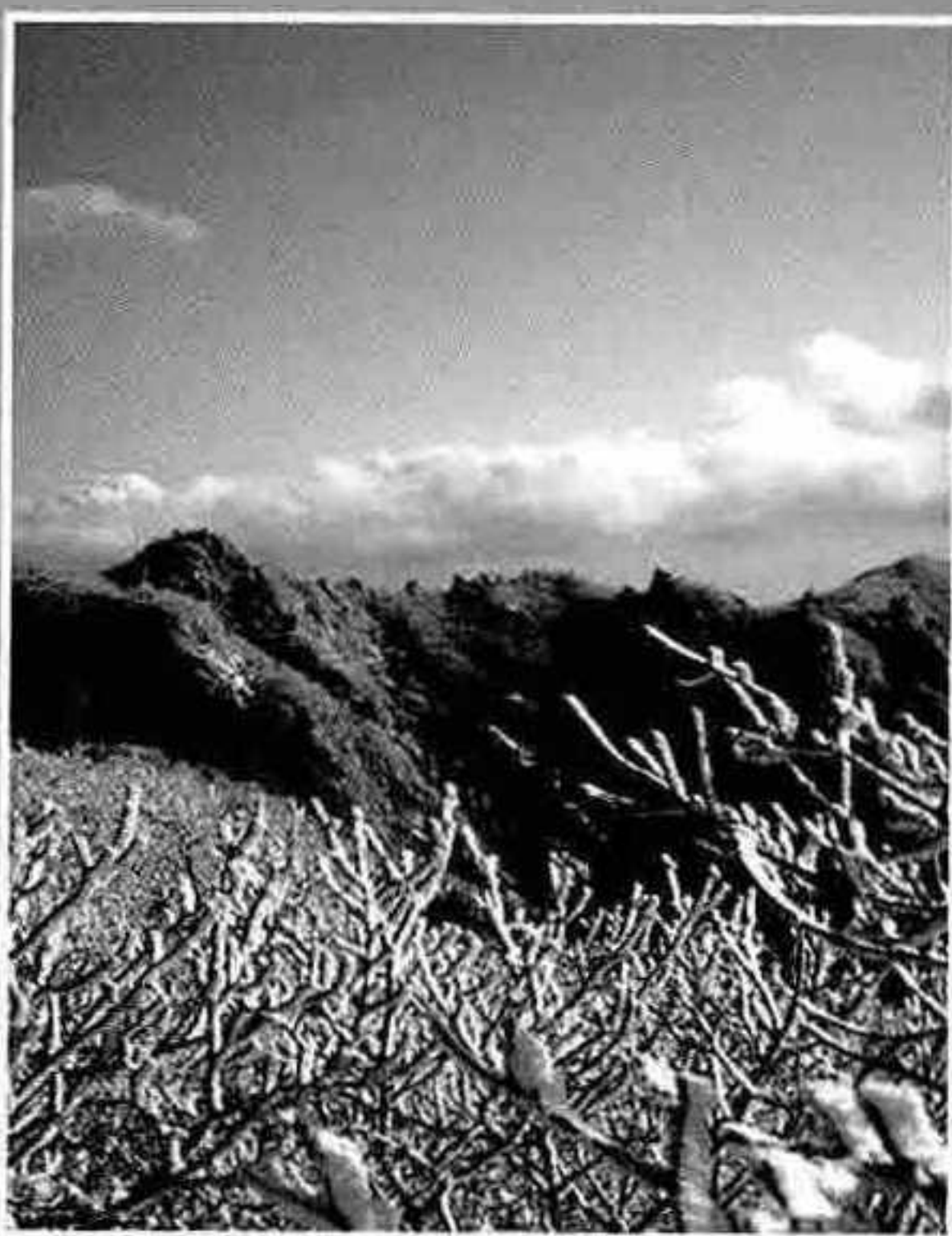


# Contents

January 2008 축산물등급판정소 2...년 1월호(통권137호)

- 02 \_ 축산단신
- 04 \_ 기획특집  
축산물검수시스템 사용 실태 및  
성과 조사결과
- 09 \_ 전문가심층분석  
2008년 주요 농정시책
- 12 \_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유일농장-한동수 농가
- 14 \_ 축산식육상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상식
- 15 \_ 소·돼지 가격전망
- 16 \_ 소·돼지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
- 17 \_ 등급판정 통계자료  
12월중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22 \_ 고객제안제도 결과
- 23 \_ 등급판정 소식



표지사진 '설원사이로 지는 해'  
서울지역본부 차장 이승곤 작

## 지자체 축산분뇨 대책수립시 농가 참여해야

새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여될 관할 구역내 가축분뇨 처리 대책 수립시 양돈농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권역내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계획 및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는 이와 관련 사실상의 가축분뇨법 시행원년인 올해부터 지자체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수립시 양돈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양돈장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인인 가축분뇨 관리대책, 그것도 10년 동안 영향을 미칠 대책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축분뇨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양돈농가들만큼 자신의 농장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며 "더구나 양돈장의 운명이 달린 중요 사안인 만큼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 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 가급적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한 가축분뇨 통합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법'에서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허가규모 분뇨도 처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역시 가축분뇨 관리대책 수립시 양돈농가의 참여가 이뤄질 때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작년 PED 증가... PRRS·TGE 감소

지난해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은 증가한 반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과 전염성위장염(TGE), 오제스키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PED는 모두 36건에 1만 3천 724두의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이는 30건에 1만 258두의 발생이 확인된 전년보다 건수는 20%, 두수로는 33.8%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PRRS의 경우 공식확인된 발생두수는 1천 574두(23건)로 전년의 3천 371두(35건)에 비해 53.3%가 감소했다. TGE도 지난 2006년의 1천 553두(4건)에서 85.8%가 줄어든 220두(3건)의 발생만이 지난해 확인됐다. 이밖에 오제스키병의 경우 경남도에서 82두(2건)가 발생, 2개도에서 2천 343두(7건)의 발생이 확인된 전년도에 비해 96.5%나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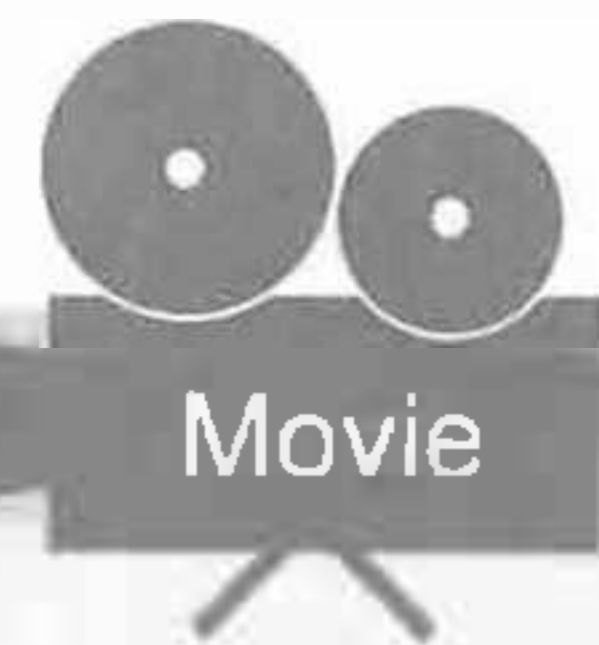
## 돼지열병 청정화 돼지값 안정 중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과 돼지 열병 청정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돈가 안정화가 중점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월 3일 2008년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PRRS안정화와 돼지열병 청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현재 양돈농가의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 평균 13마리 수준을 18마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또 한국형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돼지자금률 설정과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안정화 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처리와 자체처리,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 등 지자체 중심의 통합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수립해 지역별로 가축분뇨 처리 적정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올 해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 것이고 현장을 자주 돌며 농가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청, 세계 최초 100% '한우확인 시험법' 내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지난 12월 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염기다형성)를 이용해 한우와 수입우, 교잡우, 젖소 등 비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 한우확인 시험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돼 공인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특허출원한 상태로, 이중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를 이용해 젖소와 한우를 구별하는데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입우가 한우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한우 판별이 불가능했던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법이 공식화됨에 따라 한우판별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안도감을 확보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산책 -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 저자 : 정운철
- 출연 : 황정민, 전지현
- 제작 : CJ엔터테인먼트

## 나는 오늘 하늘을 나는 세가지를 보았다 비행기, 새... 그리고 슈퍼맨!

3년째 방송프로덕션에서 신과 '휴먼다큐'를 찍고 있는 송수정PD. 동정심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에 신물이 난 그녀는 어느 날 악당이 머리 속에 넣은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현재는 초능력을 쓸 수 없다는, 자칭 슈퍼맨이라고 주장하는 사나이를 만나게 된다. 슈퍼맨은 사소한 선행에 열중하는가 하면, 북극이 녹는다면 지구를 태양에서 밀어내기 위해 물구나무를 서는 등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다. 그녀의 휴먼다큐 <지구를 지켜줘요, 슈퍼맨>은 시청률 대박의 쾌거를 이룬다. 대박 기념 회식 후, 숙취에 시달리며 집에 누워있던 송PD의 눈앞에 다시 슈퍼맨이 나타난다. 슈퍼맨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괴물이 나온다는 골목 맨홀로 수정을 데려가지만, 괴물은 커녕 하수구 냄새만 진동할 뿐이다. 수정은 그 곳에서 머리를 다친 슈퍼맨을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고 엑스레이 사진 속 슈퍼맨의 머릿속에 진짜 무언가가 박혀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송PD는 그를 집중 취재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리고, 슈퍼맨의 진짜 이야기가 냉철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다.